

연구로서의 뇌과학과 대중의 '뇌과학'

맹미선 (서울대)

1990년 부시 행정부가 뇌 연구 촉진을 위한 '뇌의 시대(Decade of Brain)'를 선언한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뇌 연구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뇌연구 촉진법'을 제정, 국내 뇌 연구의 기반을 육성하고 관련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이름의 뇌과학 관련 학과들이 신설되어 있고, 출판시장 역시 수년 째 뇌와 관련된 여러 주제의 대중 서적들을 출간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많은 나라들이 뇌를 연구함에 있어 주로 '신경과학(neuro-science)'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뇌에 대한 관심은 주로 '뇌과학'이라는 단어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발표는 뇌를 직접 연구하는 연구 분야와 뇌에 대한 지식을 접하는 대중 영역에서 '뇌과학'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영역 간의 연결지점과 그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대학에 개설된 여러 뇌과학 학과의 개치 프레이즈와 연구 현황을 검토하여 연구 영역에서 '뇌과학' 지식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 '뇌과학'이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저자들의 뇌과학 베스트셀러를 분석하고, 추가로 과학 대중 잡지, 과학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뇌과학'에 대한 수사를 검토해 보았다.